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가을의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매미 소리는 잦아들고, 밤의 서늘한 기운을 품은 풀벌레 소리의 데시벨이 부족 높아졌다. 불을 켜지 않은 채 풀벌레들의 노래에 귀를 기울인다. 그것은 마치 영원의 저쪽에서 보내는 신호 같다. 몸 안의 가장 작은 빠른 추골·침골·등골 등을 통해 이 소리가 전달된다. 이 청각의 기억을 타고 가을밤의 쓸쓸함과 멜랑콜리가 물러온다. 물론 내 상태는 항우울제인 프로작을 삼켜야 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19세기 초 런던 거리에는 약 4만 개의 가스등이 켜졌다. 헤드랜턴도 손전등도 없던 시절 작가 디킨스는 불면 때문에 축축한 습기와 안개가 짙어지면 어둠이 유령처럼 떠도는 런던 거리를 쓰다녔다. 촛불과 고래 기름을 써서 어둠을 밝히던 시대는 빠르게 지나갔다. 백열구가 나오고 산업사회로 진입한 뒤 인공조명들이 밤을 장악한다. 그리고 빛과 소음 공해에 의해 밤은 잠식되었다. 이론적으로 인간은 밤하늘에서 3000개의 별을

가을밤에 생각한 것들

식별할 수 있다지만, 많은 별과 은하수는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이에 따라 빛과 어둠의 순환주기가 깨졌다. 많은 양서류와 파충류들이 이에 영향을 받아 생태적 교란에 빠졌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밤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깃들여 있다. 저 선사시대 인류의 뇌에 놓여들어 있던 두려움이 유전된 탓이다. 밤마다 맹수들이 포효하고, 재앙은 어디서 덮칠지 몰랐던 시대에 밤은 지옥의 휘장이었다. 밤이면 소동과 통행금지가 시행되던 중세 때까지 밤은 악탈과 방화가 일어나는 위험한 시간으로 인지되었다. 악령들이 출몰하는 시간에 인류는 전전긍긍했다. "밤은 인간 최초의 필요악이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자주 출몰하는 두려움이다."(로저 에커지, '잃어버린 밤에 대하여') 현대에 와서야 밤에 덧씌워진 사악한 이미지가 벗겨지고, 인류는 밤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

밤은 어둠의 시간이다. 밤은 개와 늑대가 분별이 되지 않는, 땅거미가 질 때부터 시작한다. 해진 뒤 사위가 어둠에 갇힐 때 낮은 어둠에 삼킨다. 땅거미(gloaming), 닭 가두기(cock-shut), 더듬거리는 시간(groping), 까마귀 시간(crow-time), 낮의 대문(daylight's gate), 올빼미 빛(owl-leet) 등등. 이 어둠을 가리키는 영어 관용구들은 많고 많다. 야생의 밤은 달빛과 별빛을 빼고 나면 캄캄하다. 그 어둠 속에서 큰 고양이과를 비롯한 야행성 동물과 올빼미와 같은 조류들이 움직인다. 그들

은 어둠 속에서 사냥감을 쫓는다.

밤은 잊힌 우리 삶의 절반이다. 우리 생의 절반은 밤에 빛어지지만 그 절반의 의미와 비중은 간과된다. 밤의 일은 낮의 노동과 성취에 견주 대단지 않다고 여긴다. 무심코 밤을 잠과 꿈의 시간으로만 분류한다. 모든 밤은 그 이상이다. 밤은 낮의 노동이나 낮의 근심으로 부터 휴식과 해방을 가져다준다. 또한 밤은 사고와 성과 고독의 시간을 배준다. 우리가 결락시킨 밤에 이루어지는 감정생활을 비롯해서 밤에 은밀하게 일어나 일들을 합해야만 인간의 역사는 완전해진다.

지구를 밝히는 최대의 조명기구는 태양이다. 천문학자 찰스 레이모가 말하듯이 '태양은 몇 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원반 속의 별 하나일 뿐'이라 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 광원은 지구의 낮을 온전하게 밝힌다. 밤의 시작과 함께 이 조명기구는 돌연 꺼진다. 부엌·뒷마당·홀룸은 어둠에 잠기고, 밤이 우리의 시각을 회수해 간다.

달이 어둠 속에서 작은 조명기구 구실을 할 때 나는 가을밤의 고요, 쓸쓸함, 멜랑콜리를 맞는다. '세계의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는 갈망'이라는 에릭 G. 윌슨의 말에 동의하는 한에서 나는 멜랑콜리를 좋아한다. 그것은 차라리 가을밤의 특권이다. 가을밤에는 잠들고 싶지 않다. 오래 깨어서 명징한 의식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싶다. 생각한다다는 것은 어둠을 찢고 삼키는 일이다. 나는 낮보다 밤을 더 중대한 의미의 시간으로 향유하고 싶다.

社說

‘캐스퍼’ 첫선 광주를 자동차 선도 도시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하는 첫 차인 1000cc급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인 ‘캐스퍼’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자동차는 그제 캐스퍼의 외관 디자인을 공개하고 15일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캐스퍼는 현대차가 GGM에 위탁 생산하는 차량이다. 국내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사회통합형 노사 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캐스퍼가 나오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한 지 7년 만인데 광주시·노동계·현대차·시민단체 등 노사민정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도 2년 3개월이 걸렸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대의명분에도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만큼 각 진영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노동계는 임금의 하향 평준화라는 이유로 반발했고 경영계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끊임 없는 공론화와 광주시의 끈질긴 노력이

더해지면서 타협점을 찾아냈고 정부의 제1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라는 성과가 끌어냈다.

GGM의 1호차 출시는 한국 경제 측면에서 고질적인 문제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대립경 노사관계를 극복하는 마중물이란 의미가 있다.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광주가 명실상부한 자동차 선도 도시로 도약한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GGM은 23년 만에 국내에 신설되는 완성차 공장으로서 연간 1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혼류 생산 시스템을 갖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생산도 가능해 기아차 광주공장의 연간 60만 대 생산 능력까지 더해질 경우 광주가 국내 최대 자동차 도시가 된다.

양증맞은 캐스퍼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다. 광주형 일자리를 상징하는 캐스퍼가 국내를 넘어 지구촌을 질주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광주가 향후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선도 도시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계 이른 전자발찌 성범죄 대책 절실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성범죄자들의 제법과 또 다른 범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장항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뒤 달아난 마창진(50) 씨 사례만 해도 그렇다. 마 씨는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중책을 감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7월 30일 마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그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만큼 2차 범죄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애초에 사법 당국이 철저하게 관리했다더라면 범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서울에서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가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들에 대한 제

범추적 연구’ 논문에 따르면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대상자 중 재범을 저지른 사람 122명을 분석한 결과, 77.9%인 95명이 3년 안에 재범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동종 재범자는 34명이었고, 88명은 폭행·상해·협박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이중(異種) 재범자였다. 지난해 발간된 성범죄 백서 내용도 이 같은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무부와 경찰 당국은 최근 전자발찌 훼손을 막기 위해 더 견고한 제품을 만들고 경찰과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용의자를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행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전자발찌를 통한 물리적 범죄 억제 장치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만큼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재범 위험도를 분류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감시·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들이 이를 훼손한 뒤 주소지를 벗어나 행방을 감추거나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엔 의붓아버지가 20개월 된 딸에게 못된 짓을 한 데 이어 폭행으로 숨지게 하면서 화학적 거세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런 주장이 이면에 처음 제기된 건 아니다. 유아나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그랬다.

은 국민이 공분하면서 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조금씩 강화됐다. 하지만 화학적·물리적 거세와 관련해서는 범죄자도 최소한의 인권을 있다는 논리와 재범 방지를 위한 합리적 방법인가에 대한 논쟁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적용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럼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 지금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성범죄자에 대해 사형이나 극도의 고통을 가하는 형벌로 다스렸다. 극한의 공포와 신체적 고통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고 사회질서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기본적으로 대역 죄인의 형량과 같았다. 강간범은 대부분 사형에 처했다. 특

히 12세 이하 소녀에 대한 강간범은 목을 매어 죽이는 교형이나 목을 자르는 참수형을 내렸다. 강간은 미수죄도 처벌 행방이 장(杖) 100대나 유배 3000리였다.

실제로 “11세 어린아이를 강간한 사노 임읍금을 교수형에 처했다”(태조실록)거나 “치녀를 강간한 첩원사말 정경을 교수형에 처한다”(세종실록)라는 기록이 보인다. “16세 처녀를 끌고 가 강간한 노비 형제 등 3명은 상전을 겁간한 죄로 법정최고 형인 능지처참의 극형을 받았다”(태조실

록)라는 기록도 있다. 능지처참은 고통을 서서히 느끼면서 죽도록 하는 잔혹한 사형으로서 대개 팔다리와 어깨·기슴 등을 잘라내고 마지막에 심장을 찢은 뒤 목을 베는 형벌이다.

이 같은 조선시대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사료는 없다. 물론 현대에 와서도 강력형이나 극도의 고통을 가하는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 하지만 부작한 전자발찌를 제거하고 도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큼은 재범 의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재희총 사회부장 chae@

종교칼럼

존중!



황성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나는 존중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져 보았다. 지금의 ‘나’라는 사람이 있기까지는 스스로의 능력보다 다른 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작용했을 것이다. 부모님을 통해서 부상으로 세상에 태어났고, 배우고 성장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도움과 지지를 받고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하고 도움을 주었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가 5장 11절에서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저마다 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서로를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을 내가 그만큼 존중하고 있느냐는 말이다. 이 존중감이 없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무한 경쟁만 펼쳐질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도 떠오른다. 결국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서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지난주 우리나라로 이송된 아프간인 390여 명에 대한 소식이 매우 인상적이다. 일본은 한 명도 이송하지 못했고 한국만 성공했으며 다른 많은 나라들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를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의 시각만으로 비교한다. 하지만 우리의 성공을 바꿔 보자. 성공과 실패의 시각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 이송받았는지 준비되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공군은 버스 안에서 죽음의 위험을 뚫고 겨우 카불 공항에 도착한 아이들을 위해 사랑을 준비했다. 100여 명이나 되는 영유아들을 위해 분유와 젖병을 준비했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인형을 나눠 주기도 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사람을 위해 이렇게 섬세하고 면밀하게 준비를 했더니 놀란다. 이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였고, 우리 정부를 도와준 이들에 대한 본질적인 예의였다. 그래서 아프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한국군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 정부와 군인들의 쉽지 않았던 이번 작전에는 사람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자체인 존중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가톨릭교회는 매년 9월 마지막 주간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로 정하여 이주 노동자들과 난민 그리고 실향민들을 기억하고 있다. 2020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에서 이주민과 난민 그리고 실향민을 위해 기도하자고 초대하시면서 이들

을 받아들이는 네 가지 방법을 제안하셨다. 교황은 담화문에서 헤르데의 폭정을 피해 이집트로 떠나셨던 아기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며 국내의 실향민을 환대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해 가자고 말씀하신 것이다.

‘받아들이는’은 서로를 풍성하게 하고 견인 있던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우리를 더욱 성장하도록 이끈다. ‘받아들이는’은 엄청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외국인인 이주민과 난민 그리고 이번 아프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또한 커다란 가능성을 갖게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환대, 보호, 증진, 통합’이 네 가지의 인간이라면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교황은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에서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강조하셨다. 이번 아프간 사람들을 구출한 작전은 우리 정부를 도운 이들을 존중한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의 실천이었다.

예수의 비유인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더 깊게 다가온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재산 및 온 마음을 바쳐 치유해 줌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끝까지 않는 코로나19 상황,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우리들의 관계성, 이기적으로 변해 버린 우리의 사회, 탐욕에 젖어 누가 힘이라도 무관심해지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든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기고

‘광주 혁신교육 시즌2’가 지향하는 바는?



이정선
광주교대 교수, 전 총장

지금까지 시행된 우리 지역의 교육복지는 크게 국가에서 추진한 교육복지 사업과 무상급식으로 대별된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우선사업’은 후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전환되었고, ‘마을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가장·학교·지역사회의 통합적 교육 모델을 낳았다.

교육복지 사업은 아동·청소년기에 필요한 기초학습능력, 심리정서적 안정감, 사회적 관계형성 능력을 갖추도록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통합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학습, 심리 정서, 문화 체험, 복지(건강·위생·보건) 그리고 지원 영역에 걸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출발선상의 차별을 극복해 개천에서 다시 용이 나게 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처음엔 교육복지사가 대상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다가 현재는 전체 교사가 참여하고 학급 응집력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교원에게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광주희망교실’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교육복지 사업

을 교육과정과 결합해 전체 학교교육 차원에서 운영하고 교육 불평등을 최소화 할 것인가이다.

우리 지역 교육복지의 다른 축은 무상급식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광주가 타 시도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식자재, 인건비, 운영비 지원으로 구성돼 있는 무상급식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 교육은 지자체의 도움으로 식자재 지원까지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완전 무상급식이 남은 과제이다. 물론 영유아 교육은 국가가 지원하는 의무교육이 최종 목표이다.

또한 수학여행비, 학습 준비물, 방과후교육, 교복비 등 학생의 학교 교육과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가능하면 수익자 부담보다는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된 우연적 출생으로 발생한 출발선상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히 과거 IMF와 같은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험으로 인해 발생한 교육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복지 사업이 나온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계층 간 더 커진 교육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취약 계층과 도움을 필요으로 하는 아이들에게는 우리 지역도 교육특별지원금과 같은 특단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지속적인 일정 금액의 ‘특별기본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이다. 이들도 처한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을 비롯한 재정 지원은 재학 중인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을 막론하고 모두가 우리의 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교육복지의 완성을 위해서는 질병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사회와 교육청의 관심과 세심한 돌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재학생들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을 받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이유에서건 학교 밖 아동·청소년이 된 이들에게도 유사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와 사회는 어떤 방법으로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시혜를 베푸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복지의 완성은 기존의 교육복지 사업을 교육과정상에서 녹여서 실천하는 일, 영유아교육의 무상화,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무상교육 실시, 특별기본교육비의 상시적 지원 등이 가능할 때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제로화는 물론 출발선상의 불평등과 차별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따뜻한 교육복지’를 통해 출발선상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 ‘광주혁신교육 시즌2’가 이루고자 하는 교육복지의 완성이다. 시민의 생각이 교육을 바꾼다. 구성원의 관심과 응원의 크기가 교육복지의 완성 시기를 앞당긴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은 필수적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